

[종합·국제]

“내년 3월까지 비핵화 2단계 완료” “오바마, 北·이란 핵저지 최우선 과제”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도쿄 회동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일 “한국과 미국, 일본은 가끔씩 내년 1분기 내에 비핵화 2단계(핵능동화 및 핵신고)를 매듭짓고 3단계(핵포기)로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도쿄에서 한·미·일 3자 수석대표회담을 가진 뒤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회견에서 “오늘 검증의정서 및 비핵화 2단계 마무리 등에 대해 입장을 조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비핵화 2단계는 북한의 핵시설 능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와 이에 따른 나머지 5개국의 중유 95만에 해당하는 경제·에너지 지원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당초 10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검증 방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8일 개막할 것으로 예상되는 6자회담에서 논의할 핵심의제인 검증의정서와 관련, “3국은 합의에 시료채취 등 검증의 핵심요소들이 포함되도록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어떤 종류의 합의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 간에 거기에 시료채취가 의심의 여지없이 얹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이 납치문제 진전을 조

건의로 걸머져 동참하지 않고 있는 대북 중유지원 20만에 대해 “국제모금하는 방안을 이번 회담에서 합의하기로 했다”면서 “국제모금을 하더라도 6자회담의 구도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특히 “북한이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한편 미국, 일본, 우리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북한

의 국익에 도움이된다는 측면에서 양자 관계 개선도 강조해 나가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 6자회담 채널을 통해 북한을 남북과의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그는 조만간 중국이 6자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소개한 뒤 회담은 3~4일 간 열릴 것으로 내다

봤다. /연합뉴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오른쪽)가 3일(현지시간) 도쿄의 일본 외무성 청사에서 김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사이키 이치카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가운데)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의회 보고서... “외교적 노력 실패 땀 군사적 행동 강조해야”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은 국제사회의 시급한 위협인 만큼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는 이들의 핵무기 프로그램 저지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고 미 의회 보고서가 2일 밝혔다. 초당적 인사들로 구성된 미 의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테러방지위원회’는 이날 ‘위기에 빠진 세계(World at Risk)’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란의 핵무기 능력 확보 노력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지에 대한 의구심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로는 풀 수 없는 핵확산 경계를 촉발할 수 있다며 전 세계는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성공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하면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 핵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핵무기 1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어 보고서는 오바마 차기 정부에 대해 북한측에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고 있다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때의 해택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북한이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도 폐기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란 핵문제와 관련, 오바마 정부는 이란의 모든 핵무기 개발 노력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연합뉴스

보고서는 차기 미 정부가 북한, 이란 정부와 직접적인 외교를 통해 이들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려 고 한다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때의 해택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처치될 막대한 대가를 모두 강조하면서 힘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직접 위협이 되는 군사적 행동에도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체적을 동반한 단군 전략”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연봉 1억만 받았다 美자동차 ‘빅3’ CEO 구제자금 지원 호소

과산 위기에 몰려 정부에 자금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미국의 3개 대형 자동차업체의 최고경영자(CEO)들은 2일 구제자금이 지원될 경우 연봉을 단 1달러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등 이른바 ‘빅3’는 구제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구책을 담은 회생 계획안을 마련, 2일 의회에 제출했다.

90억달러의 자금지원을 요청한 포드자동차의 앨런 멀러 최고경영자는 이날 정부의 지원자금을 이용해야 할 경우 연봉을 단 1달러만 받겠다고 제안했다.

GM의 대변인은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리 웨이크 CEO 역시 연봉을 1달러만 받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크라이슬러의 로버트 나델리 CEO는 지난달 의회에 출석, 정부의 자금지원이 이뤄지면 연봉을 1달러까지 낮추는데 동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자동차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자금이 투입될 경우 ‘빅3’의 CEO들은 사실상 무보수로 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태국 수도 방콕의 수완나품 국제공항과 돈므앙 국내공항 등 2개 공항을 점거하고 있는 반정부 시위대가 3일(현지시간) 농성을 풀고 자진해산하면서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다. 공항이 정상 운영된 뒤 첫 국내외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태국 의회 내주 초새 총리 선출

시위대 공항 점거 풀어 항공기 운항 재개

태국 의회는 내주 초 이틀간 임시회를 열고 차기 총리를 선출하기로 했다. 이파완 위라이야이 태국 의회 부의장은 오는 8~9일 이틀간 임시회를 열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면서 임시회 기간에 의원들이 차기 총리를 선출하게 될 것이라고 3일(이하 현지 시간) 말했다.

현지 유력 일간지인 ‘네이션’은 인터넷판을 통해 차기 총리 후보로 미크란 사일수완 산업부 장관과 칼람 유람용 보건장관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은 탄신 치나왓 전 총리 계열로 분류되는 인사여서 반정부 단체인 국민민주주의연대

(PAD)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계 일각에서는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거국내각을 구성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PAD 시위대 수천명은 약속대로 이날 오전 10시에 점거농성 중이던 수완나품과 돈므앙 공항을 태국공항공사측에 내주고 농성장을 떠났다.

앞서 PAD는 성명을 내고 “차기 정부는 새로운 정치를 도입하겠다는 진실한 약속을 해야 한다”면서 “탄신의 폭두각시 제제가 또다시 들어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등) 부패한 정치인들의 사면을 위해 헌법이나 법률을 개정하거나 입헌군 주제를 짓밟으려 하면 PAD는 다시 돌아온다”고 위협했다.

PAD 시위대는 정부청사에서 8월 26일부터 100일째, 수완나품과 돈므앙 공항에서는 각각 9일과 8일째 점거농성을 벌여왔다. 세리랏 프라수타는 AOT 사장대행은 “오늘부터 부분적인 공항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OT는 공항 운영 재개 후 처음으로 이날 오후 5시에 타이항공 소속 여객기가 승객 305명을 태우고 남부지역 유명 관광지인 푸켓을 출발,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金 통일 “개성·금강산 방문 당분간 제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3일 육로 통행 제한 등을 담은 북한의 12·1 조처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 “당분간 개성·금강산 지역의 방문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에 출석, 이같이 밝힌 뒤 “그 밖의 북한 지역 방문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하고 질서있는 교류를 추진토록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은 개성공단 업체 관계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 장관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추가적 조치로 “더 많은 인원을 개성에서 내보내거나 맨 마지막에 가서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북한이 12·1 조처에서 ‘모든 교류협력과 경제 거래 목적의 납출 인원 통행(육로)을 제한 또는 차단한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고 국민의 신변 안전을 감안해 개성과 금강산 지역 방문 건을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12·1 조처에서 ‘모든 교류협력과 경제 거래 목적의 납출 인원 통행(육로)을 제한 또는 차단한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고 국민의 신변 안전을 감안해 개성과 금강산 지역 방문 건을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차기 고속정 ‘검독수리-A’ 전투체계 개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현재 해군에서 초기 운용중인 차기 고속정인 유도탄고속함(PKG.일명 검독수리-A) 전투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ADD가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2000년부터 710억 원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유도탄고속함용 전투체계’는 함정이나 항공기, 미사일, 잠수함 등 적 표적을 탐지하고 식별해 대응하는 함정의 핵심 무기 체계로, 지휘부장통제체계, 탐색레이더, 추적레이더, 전자광학장

비(EOTS)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레이더와 위성을 통해서 자동으로 적에 대한 정보와 위협, 잠수함 등 적 표적을 탐지하고 식별해 대응하는 함정의 핵심 무기 체계로, 대공(對空), 전자전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Oxian Korea) featuring real estate listings.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김갑순 (Kim Gap-sun) and a table of properties categorized by region (Gyeonggi, Seoul, Incheon, etc.) with details like price, area, and location.

Advertisement for iElysia (아이엘리시아) restaurant. It features a logo, a list of services (weddings, seminars, etc.), a testimonial from a satisfied customer, and a table of menu items with prices. The ad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10% discount offer.